



# “미세먼지 제거하는 천연이끼로 인테리어 완성”

온향은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제거 효과가 뛰어난 천연이끼를 활용해 액자를 만드는 업체다. 온향이 사용하는 천연이끼는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스칸디나비아반도 고산지대에 서만 자라는 ‘스칸디아모스’ 또는 ‘레인디어모스’로 불리는 이끼다. 순록이 유일하게 먹는 먹이여서 ‘순록이끼’로도 불린다. 박혜희 온향 사장(29)은 “천연이끼는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다”며 “앞으로 인테리어 소품이나 가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혜희 온향 사장이 천연이끼 액자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온향	
설립	2018년 1월
위치	경남 거제시 농포동
제품	공기정화식물 천연이끼 액자
특징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가 있는 스칸디나비아 순록이끼 사용

별한 날을 기념하는 문구나 날짜도 새길 수 있다. 이끼의 양을 늘려 풍성한 나무 모양도 만들 수 있다. 이끼는 살리곤 접촉제로 불린다.

박 사장은 올해 자회사(모스디자인)를 설립하고 천연이끼를 활용한 인테리어 시공 사업도 할 계획이다. 실내 벽을 천연이끼로 채우는 ‘천연이끼 월패드’, 평면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난 3차원(3D) 입체 모양을 구현한 ‘천연이끼 입체모형’, 다양한 가구 및 전등 등과 결합한 ‘천연이끼 가구’, ‘천연이끼 전등’ 등을 개발하고 있다. 박 사장은 “가구에는 서랍장이나 선반처럼 잡다한 물건을 뒤 어수선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천연이끼 액자 소품으로 가려 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천연이끼를 활용한 백화점 내부 시설 연출, 명품 매장 디스플레이, 지하철 같은 공공기관 내 인테리어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 박 사장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장애인과 같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제거 효과  
부산대 조경학과를 졸업한 박 사장은 경남 창원시에 있는 조경회사를 다니던 지난해 초 온향을 설립했다. 온향은 40년 정도 된 북유럽산 천연이끼를 수입한다. 원래 이끼 색깔은 얼은 황색이지만 온향은 미네랄 성분으로 염색해 다양한 색상을 입힌다.

천연이끼는 자기 몸집의 10배에 해당하는 공기 중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제거한다. 이를 통해 비염 아토피 등 호흡기 및 피부 질환자의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면적이 넓은 섬유질 구조여서 습도 조절 능력도 뛰어나다. 습기가 많을 때는 공기 중 수분을 흡수해 이끼가 축축해지고 건조할 때는 공기 중에 수분을 배출해 표면이 딱딱해진다.

천연이끼는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암모니아 같은 알데히드 성분을 제거하는 능력이 좋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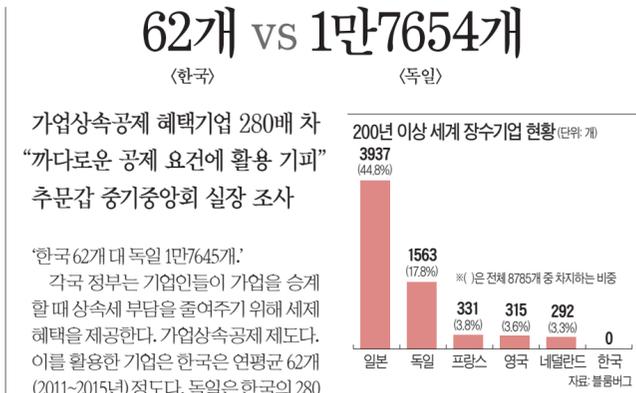
자기 몸집 10배 미세먼지 흡수 공기 중 습도 조절 능력 뛰어나

이끼 활용한 인테리어 사업 나서 천연이끼 월패드가구·전등 개발

없이 공기 중 수분과 영양성분만을 섭취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는 것도 장점이다. 오히려 물을 주거나 직사광선을 쬐면 굳어서 변색되거나 빨리 죽을 수 있다. 박 사장은 “보통 습도가 30% 이하인 건조한 환경에서는 천연이끼 표면

이 딱딱해지기 시작한다”며 “이럴 땐 물을 주는 대신 화장실 등 습기가 많은 곳에 뒤 공기 중 수분을 다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천연이끼가 딱딱해지면 사무실 환경이 건조하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인테리어 시공사업도  
온향은 천연이끼 제품을 화분 형태로 판매한다. 캔버스 위에 천연이끼로 모양을 만든 액자 형태로 제작한다. 하트 아이스크림 나무 등 다양한 모양의 액자가 만들어진다. 캔버스 아래 빈 여백에 캘리그래피로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우리가 함께여서 행복합니다”처럼 다양한 문구도 넣을 수 있다. 생일 집들이 개입식 등 특



“한국 62개대 독일 1만7654개”  
각국 정부는 기업인들이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상속공제 제도다. 이를 활용한 기업은 한국은 연평균 62개(2011~2015년)정도다. 독일은 한국의 280배나 된다. 그만큼 한국은 가업을 상속하기 어려운 구조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사진)은 업력 30년 이상 130개 장수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는다. 사회학자본이 장수기업 승계 프로세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에는 상속공제 활용 기업 수 외에 참고할 만한 몇 가지가 눈에 띈다. 추 실장은 중앙회 홍보실 비서실 기획실 등을 거친 중소기업 전문가다.

상속공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까다로운 요건이 꼽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100%(중간기업 120%) 이상, 10년간 주된 업종 및 상속지 등을 중양회 홍보실 비서실 기획실 등을 거친 중소기업 전문가다.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제품을 내놓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중분류 내에서 가능하게끔 해줘도 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논문에서 조사한 130개 장수기업의 대표자 평균 연령은 63세다. 이들은 대부분 국내 중소기업 1세대로 승계를 준비하고 있다. 추 실장은 “상속세율 인하, 고용조건 완화 등 제도를 정비해야 중소기업이 세대를 뛰어넘어 명문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에서는 또 경영자와 후계자 사이의 승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핵심 가치에 대한 공감대, 소통, 네트워크, 신뢰 지속성 등 네 가지를 사회적 자본으로 규정했다. 추 실장은 “기존 경영자와 후계자 사이의 소통 등은 승계 과정에 긍정적이지만 지나치면 후계자에게 침전으로 인식돼 승계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NEW** 새로 나왔어요

### 현대리바트, 키즈락 가능 탑재 소파

현대백화점그룹의 토틸 인테리어 기업 현대리바트는 안전 기능을 강화한 ‘레가토 리클라이너 키즈락 소파(사진)’를 내놴다.

이 제품은 기존에 출시된 ‘레가토 소파’에 ‘키즈락’ 기능을 추가한 게 특징이다. 키즈락 기능을 켜면 등받이와 발 받침 각

도를 조절하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판매가격은 3인용이 103만 원, 4인용이 133만 원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 일자리 창출 기업 이자 부담 준다

**우리회사에 딱! 중소기업책 A to Z**  
중진공, 최대 5000만원 지원 오는 31일까지 환급 신청해야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진공)이 일자리 창출 등 성과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지원 후 고용창출·수출증대 등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제도’는 중진공이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환급 신청을 받는다. 이달 환급 신청은 2017

년에 정책자금을 신규 대출받은 업체가 대상이다. 이들 업체는 고용창출·수출 등 성과 유형별 기준에 따라 환급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대출 후 3개월 내에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증가 인원 1인당 0.1%포인트, 대출 후 12개월간 첫 수출 10만달러 이상의 성과를 낸 기업은 0.2~0.4%포인트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고용창출·수출성과 등을 합산해 최대 2%포인트 내에서 5000만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분 이자금액 내에서 환급된다. 환급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섭 중진공혁신성장본부장은 “이자 환급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 한진화학, 고성능 열차단 필름 개발 나서

화학 도료업체인 한진화학이 전기가 통하는 합성수지(전도성 고분자 물질)를 활용한 스마트필름 개발에 나선다.

한진화학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평가원과 유기 전자 재료인 전도성 고분자 소재 기반의 ‘자외선(UV)/적외선(IR) 차단 전기 변색 스마트필름’ 개발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소재부품기술개발 산업기술혁신사업’으로 수행되는 이 프로젝트(사업비 45억원)는 2021년까지 진행된다. 차량 등에 붙이는 열차단 필름의 기능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자외선·적외선을 차단하고 낮에는 전기를 통해 햇빛 투과율을 15%로 낮추고 밤에는 50%까지 높여 에너지를 절약한다. 1963년 설립된 한진화학은 공업용 및 특수도료뿐 아니라 전도성 고분

자 물질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한진화학은 연세대 나노소재 원천기술 개발사업 연구단과 공동으로 전도성 고분자 물질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양산화에 성공했다. 이를 활용해 유리창에 붙일 수 있는 1㎡ 이상 대형 면적의 스마트필름도 생산할 계획이다. 한진화학은 또 필름에 들어가는 전극소재로 기존 금속인 인디움주석산화물(ITO) 대신 유연한 고분자소재(피닷·피에스에스합성물질)를 사용해 쉽게 구부릴 수 있도록 했다. 전기적 특성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어 투명 박막 필름, 정전기방지 보호필름, 유기태양전지, 전기변색 스마트필름 등 폭넓은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모십니다**

### 일본전문가 최고위과정 3기 모집

한경닷컴이 ‘일본전문가 최고위과정 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2016년 개설된 일본전문가 과정은 1개월 코스로 국내 수업과 일본 현장 연수로 짜여 있다. 오는 22일 시사일본어학원 강남캠퍼스(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에서 시작하는 국내 강좌는 △야베노믹스와 한국 경제 시사점(이종윤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일본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류재광 삼성생명 인생명연구소 수석연구원) △일본 장수기업의 DNA를 찾는다(오태현 경희사이버대 교수) △네트워킹 파티 및 특강 등으로 구성된다. 다음달 15~17일 요코하마시립대 수업(4시간)과 가마쿠라 역사문화 탐방, 일본 기업 현장 방문 등 현지 연수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경닷컴 마케팅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주최: 한경닷컴·사일본어학원

# 내 멋대로 살던 나, 엄마를 돌. 보. 다.

치매환자 일본 525 만 명, 우리나라 70 만 명,  
“그저 건강증이라 믿고 싶었어. 근데 우리 엄마가 치매래...”

## 엄마 미안해

일본 가정과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안긴 처절한 긴병 이야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12분에 1명씩 발병하는 치매, 이들을 위해 간병에 매달려야 하는 가족은 약 200만 명, 간병기간 평균 12년 6개월

**피하고 싶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야기!**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결국 엄마를 때리고 말았다.  
말가질 때는 반드시 경조가 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앞에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사사건건 나를 괴롭히고 있다. ‘한 대만 때리면 속이 다 시원하겠다’, 이성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이성적인 생각과 달리 머릿속의 공상의 폭은 더욱 넓어져만 간다.

형,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면 안 돼!  
내 어머니, 내 책임이라는 의식, 노인 간병에 대한 주변의 그르려나 허는 당연한 사실, 그리고 목을 조여오는 강력한 스트레스가 시야를 좁힌다. 치매 노인의 간병은 노력만해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노인의 간병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선에서 해결할 수 없다.

- 본문 중에서

김소희의 살아 지음 | 이경향 옮김 | 134,000원

KMBC  
전화 02-3788-0181 | 팩스 02-3788-0187  
이메일 kmbc@kmbc.co.kr